

평화 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 목포 시정소식

2021년 3월 vol.82

목포의 무한한 변화를 이끌  
**"3+1" 미래 전략**

MOKPO



목포시 브랜드 슬로건



## 목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브랜드 디자인

‘낭만항구’는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포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매력적인 목포시 브랜드



### 글로벌 관광도시 대한민국 4대관광 도시 목포

대한민국 4대관광  
거점도시에 선정된  
목포시는 2025년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 맛의도시 목포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도시 목포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를 선포한  
대한민국 대표 식  
도락 성지 목포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로벌  
맛의도시로 거듭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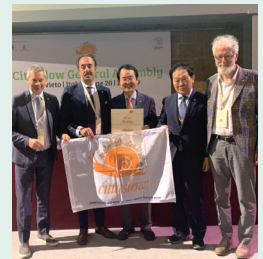
### 지붕없는 박물관 근대역사 문화도시 목포

원도심 일대가  
100년 역사를 품은  
‘지붕없는 박물관’인  
목포는 근대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 전국최초 예향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

‘예향’ 목포는 풍부한  
문화자원을 바탕  
으로 문화도시의  
날개를 달고 새로운  
문화관광도시로  
부상한다.



### 사람과 자연의 조화 국제슬로시티 목포

목포만의 역사·문화·  
전통, 생태자원의  
가치로 도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  
된 목포는 오래갈  
미래의 도시다.





# CONTENTS

2021년 3월 Vol.82

## 바람이 분다, 목포에 새 봄이 온다

- 04 바람이 분다, 목포에 새 봄이 온다
- 06 지표로 확인하는 목포의 발전상
- 08 목포의 미래를 바꾸는 “3+1 전략”
- 10 신재생에너지 - 목포형 뉴딜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 12 수산식품 - 수출시장을 선도할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성큼
- 14 관광 - 1천5백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 18 문화예술 - 예향목포, 365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활짝
- 20 새로운 여가공간 확충, 행복지수 up
- 22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목포
- 24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26 시정뉴스
  - 섬의 관문 목포, 한국섬진흥원 유치 총력
  - 목포자연사박물관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관
  - 스마일센터 개소로 원도심 활력 충전
  - 고하도 이충무공 공솔숲, 2021년 방문해야 할 아름다운 숲 선정
  - 유달산, 명승지정 추진
- 29 시민참여마당
- 30 의정소식
- 32 우리동네 소식



### Cover Story

목포의 무한한 변화를 이끄는  
목포의 “3+1 전략”



# 바람이 분다 목포에 새 봄이 온다

## 목포의 새 봄을 부르는 대변혁의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등 굵직한 사업들로 미래전략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목포는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혁신의 발판으로 삼는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 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는  
변화의 바람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산업, 관광산업 등 1천억 원이 넘는  
3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목포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산업

#### 해상풍력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

- 48조 원 대규모 8.2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의 기자재·부품 생산의 필수거점이 되는 신항
- 315억 원이 투자되는 대양산단의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 대한민국 최초로 남항에 구축되는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핵심

- 165조원 규모의 세계시장 선도
- 2024년까지 450억이 투자되는 전기추진 차도선·배터리 연구 개발 사업 진행
- 415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기술개발 사업도 올해 본격 착수 예정

### 수산식품산업

#### 1,089억 원 투입해 대양산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끄는 핵심발판
-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물류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립

#### 200억 원 투입, 김가공 개발과 어묵 기반산업 육성

- 수출전략형 김 가공산업 육성 (총100억원 투입)
- 목포형 어묵 세계화, 전라남도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총 100억원 투입)

### 관광산업

#### 1천억 원 관광거점도시 사업 추진

- 휴대폰 하나로 숙박, 음식, 교통, 관광해설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스마트한 관광시스템 구축
- 평화광장 바다분수와 해상무대 공연, 불꽃쇼가 어우러진 해상 판타지쇼(가칭) 개최
- 대반동 일대 경관조명 조성, 특색 있는 도보길 해변맛길 30리 조성

#### 다양한 관광인프라 조성

- 평화광장 맛의거리 조성,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
-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원도심 비즈터스 호텔 등 민간자본 유치
-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추진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과  
도시대상 수상 등은 물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재촉하는  
희망의 바람이 분다.

기업 유치로  
일 자리를 만드는  
희망의 바람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新바람

대규모 일자리 구축으로 지역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어져  
목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 대규모 일자리 창출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 특화 기업 신행 배후단지 입주

- 40개 관련 기업 유치, 11만 개 일자리 창출 기대

### 남향 친환경 선박산업의 집적효과

- 연간 약 4만 9천 명의 연간 고용 유발
- 2조 1천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대양산단에 조성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 36개사 기업유치, 1,430명 고용, 2,235억 원 생산유발 효과로  
경제발전 이끄는 교두보

###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을 유치해 인구유입 효과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대감 상승

- 공공기관 13개소 유치확정으로 종사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가족 등 인구 유입 기대

2020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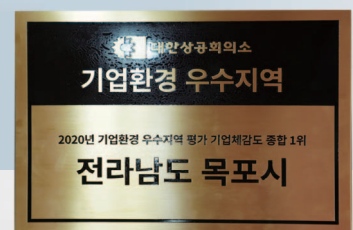
전국 **1**위

2019년 68위

## 2020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수여식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 기업체감도 1위 전라남도 목포시청

2021. 2. 26. 목포시청



## 지표로 확인하는 목포의 발전상



“지난 5년간의 주요지표를 통해  
목포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목포시의 경제지표는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도시 1위에 선정된 목포시의 기업환경은 투자와 유치를 이끌며 산단입주 기업 수는 2020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대양산단 분양률도 현재 90%를 육박해 곧 분양 완료도 머지않았다. 높아진 경제 지표와 도시경쟁력은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일궈냈으며, 대내적으로는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으로 청렴도 평가 결과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관광객 수도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며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지만 2019년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약 6백만 명에 달했고, 이는 2018년 약 3백만 명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인원이다. 관광객 증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이어져 목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비예산 확충,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목포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적극적인 세일즈행정으로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힘을 실으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편 빠른 지방채 상환 등 내실 있는 재정운용으로 예산대비 채무 비율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도 향상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변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모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목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민선7기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앞으로도  
목포 발전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지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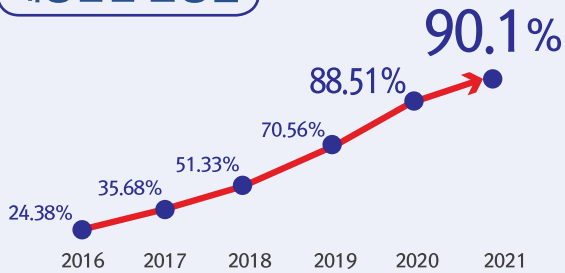


### 청렴도 향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대양산단 분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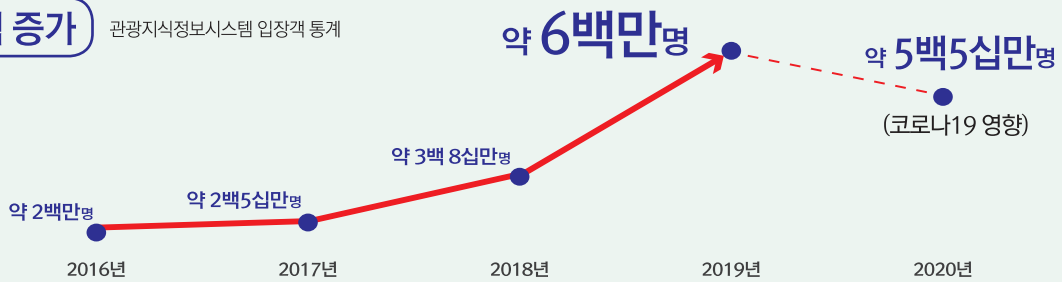
### 산단등록 업체

대양, 삼진, 세라믹 등 산단 등록업체(누계)



### 관광객 증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장객 통계



### 예산 증감

예산편성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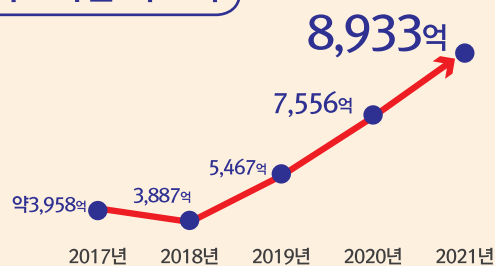
### 통합부채 증감

목포시 부채 전체(출연기관 포함)



### 국고사업 확보액

※ 국가예산 반영



### 복지시설 확충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복지시설



# 목포의 미래를 바꾸는 “3+1 전략”

## 3+1 전략이란

앞으로 10년 후, 50년 후 목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23만 목포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1**신재생에너지, **2**수산식품, 그리고 **3**관광을 더한 3대 미래 전략산업과  
예향 목포의 **+1**문화예술을 더해 목포를 먹여 살릴 3+1 전략을 마련했다.

국가정책과 연계해 전략산업의 기틀을 마련한 목포시는

지역경제를 이끄는 3+1전략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이는 목포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1

#### 목포형 뉴딜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10-11p

##### 해상풍력산업 전진기지 도약

신항은 48조원 대규모 서남해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필요한 터빈·타워 등 기자재 부품을 생산, 조립, 운송, 시공하기 위한 지원부두와 배후 부지 조성으로 해상풍력산업 전진기지가 된다. 대양산단은 컨트론타워인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해 해상풍력산업 필수 거점이 된다.

##### 국내 최초 친환경선박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항은 전기선박과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친환경 대체연료의 기술개발,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까지 포괄하는 종합단지를 구축해 165조 규모의 세계 친환경 선박시장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나고자한다

### 2

#### 수출시장을 선도할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성큼

>>12-13p

#####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핵심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다. 수산물의 가공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1,089억)는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본격 추진한다.

##### 김, 어묵 대표상품 육성

각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김과 어묵의 간편 상품화도 추진한다. 수출전략형 김가공 산업 육성 사업은 고차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목포어묵 육성사업은 21년도 ‘전남형 지역성장 사업’에 선정돼 선진화된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신재생에너지\_친환경 선박산업의 중심지가 될 남항 전경



수산물\_좌목포시장, 우 전남도지사김가공기업 현장소통간담회



관광\_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선정 기념식



문화예술\_2020 문화재 야행

### 3

#### 1천5백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14-17p

##### 간편하게 즐기는 목포관광

목포에 도착하면 휴대폰 하나로 숙박, 음식, 교통 관광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입체감 있는 해설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슨트 시스템’ 등도 함께 구축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

#####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조성

평화광장에서 펼쳐지는 해상판타지쇼(가칭), 대반동 일대 야간경관 개선 등 다양한 인프라를 더하고, 미디어마케팅을 통해 변화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 평화광장 맛의거리 조성이 올해 마무리되며, 해변맛길 30리는 올해 남항, 삼학도, 대반동 구간을 시작으로 2022년이면 전 구간 완성된 특화된 도보길을 만나볼 수 있다.

### +1

#### 예향목포, 365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활짝

>>18-19p

#####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작년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목포는 올해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12월 법정문화도시 지정까지 이어간다.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목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대표 관광도시이자 200억 원 규모의 문화도시의 타이틀까지 확보해 전국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 문학박람회 개최

문화관광도시로서 선보일 첫 번째 카드는 문학이다. 문학과 박람회를 접목한 전국 규모의 목포문학박람회를 올해 10월 개최한다. 새로운 문화행사를 선점하고, 목포가을(9월~10월)은 가을페스티벌과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풍성한 문화예술행사가 더해져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 1 신재생에너지

# 목포형 뉴딜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 신항과 대양산단은 해상풍력산업의 전진기지로

⇒ **40개 대기업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첫째, 신항에 기자재, 부품 생산과 운송을 위한 배후부지와 지원부두를 조성한다.**

- ① 서남해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풍력기의 블레이드, 타워, 터빈 등의 기자재 부품 생산단지가 될 배후부지(26만㎡)와, 바다로 싣고 나르는데 필요한 지원부두가 신항에 조성된다.
- ② 올해 하반기 준공예정인 신항 1단계 배후단지에 에너지 특화 기업을 적극 유치, 대기업과 투자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둘째, 대양산단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플랫폼(지원센터)을 조성한다.**

- ① 거대 부품을 제작하고 운반하기 위한 입지조사부터 통합관제, 유지보수까지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플랫폼(지원센터)이 대양산단에 설립된다.
- ② 총사업비 315억 원을 투입,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며, 정부 예산 65억 원 확보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셋째,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 ① 2019년 대양산단과 신항이 국가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 ②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2020년 국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 ③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형 상생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특별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해상 풍력 산업 육성은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2030년까지 48조 5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1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의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협약식 중에서 –  
(2021. 02. 05.)





## 남향은 친환경 선박산업의 중심지로

⇒ **연간 약 4만9천명 고용 유발, 2조1천억 경제적 파급효과**  
**165조원 규모 세계시장 선점 기대**

**첫째, 전기로 움직이는 선박(차도선)과 이동식 배터리**  
**(전원공급시스템)을 개발한다.**

- ① 2024년까지 450억 원이 투입되는 해양수산부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공모사업에 목포가 선정됐다.
- ② 전기 선박(차도선)과 세계 최초의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인 배터리를 연구·개발한다. 배터리는 차량형태로 만들어 선박뿐 아니라, 섬의 전력공급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 ③ 금년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해 전기선박의 개발·운용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23년까지 선박을 만들어 실제 해상에서 1년 여간 시범 운항을 거치게 된다.

### [Why] 왜 목포인가

연안여객선과 어선 점유율, 보유대수 등 집중분포 전국 1위로, 친환경 선박분야 실증단지 구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목포가 165조 규모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둘째, 탄소 배출을 낮추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도 개발한다.**

- ① 해양수산부, 전라남도과 함께 2025년까지 415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단지(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비 60억 원도 반영됐으며, 올해 공모 절차를 마무리해 본격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셋째, 연구소, 교육기관, 대기업, 대형 국책과제도 적극 유치한다.**

- 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2023년까지 남향에 연구센터 분원을 설치한다.
- ②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친환경 선박학과를 신설하고, 캠퍼스를 목포에 조성해 2022년 초 신입생 모집 예정이다.
- ③ 남향에 9천5백억 원 규모의 국비로 진행되는 친환경선박 다부처 정부사업을 유치해 대기업들의 활발한 산업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 2 수산식품

# 수출시장을 선도할

#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성큼

수산식품산업의 핵심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다. 핵심기반은 가공부터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며, 김과 어묵을 간판상품으로 내세워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 수산식품수출단지 대양산단에 조성

**기업 유치 36개사, 고용 유발 1,430명,  
생산 유발 2,235억 원의 효과**

2022년 완공 목표 기본계획 수립완료, 수산물 거래소,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 구축



전국 최대 수산물의 집산지임에도 그간 원물형태로 유통돼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을 수산물의 고차 가공화를 통해 해결한다.

핵심기반은 1,0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2년 대양산단에 완공 예정인 수산식품수출단지다.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을 완성하였으며, 수산물 거래소, 임대형 가공공장, 연구시설, 물류시설 등을 구축해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효과 또한 크다. 기업 유치 36개사, 고용 유발 1,430명, 생산 유발 2,235억 원의 효과로 목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가공김의 메카로 거듭난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 추진  
총사업비 100억 원 투입

**첫 번째, 수출주도형 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한다.**

2021년부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강화 사업으로 국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김 가공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품질검사 인공지능을 적용한 김 등급 분류체계 개발, 위해요소 저감화 기술 개발, 수출형 신제품 및 가공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김가공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단지 내 현물거래 중심 마른김 거래소 설립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도 구축해 마른 김 수출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며, 수산식품 지원센터의 연구인프라, 그리고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으로 수돗물과 바닷물을 함께 쓸 수 있어 고품질의 김 생산이 가능한 대양산단 역시 목포만의 특화된 강점이다.







## 목포어묵을 대표상품으로 육성

2021년 전남도 지역성장 전략형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100억 원 투입으로 특화어묵 육성

**두 번째, 수산식품 대표상품은 어묵이다.**

목포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어묵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목포어묵  
육성은 사업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올해  
사업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 본격  
생산공장 설립에 착수하게 된다.

2023년까지 전남 최초로 목포에 HACCP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을 갖춘 연육 및 어묵  
생산 스마트공장과 품질관리 및 이력관리 시스  
템을 조성할 예정이다.

선진화된 생산공정은 목포어묵이 독보적인 맛과  
품질을 구축하는 발판이 돼 어묵시장 틈새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인의 편익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활어위판장 추가 구축, 조기 등  
어획물 자동화 선별기 설치로 작업환경 개선



어업인의 편익을 높이는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급증한 위판물량 처리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현재 활어위판장 옆 부지에 총 사업비 50  
억 원(시비30%)을 투입해 위판장 추가 구축사업을  
수협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비 5억 원 투입으로 활어위판장과 활어회  
플라자 내 UV 해수살균시스템을 설치와 해수관로  
확장공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  
하고자 했다.

한편 2019년 선정된 해양수산부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 공모사업의 10억 원으로 지난해 목포수협  
선어 위판장에 조기 등 어획물 자동화 선별기 6대를  
설치하며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도  
도모했다.

# 1천 5백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

내 손안에 목포 다 있다!  
핸드폰 하나로 간편하게 즐기는 목포관광



“숙박, 음식, 교통, 해설까지  
핸드폰 하나로 목포 관광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목포 관광을 간편하고 손쉽게, 그리고 폭넓게 즐길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바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관광안내 플랫폼이다.

관광 정보 제공부터 해설, 그리고 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목포에 도착하면 휴대폰 하나로 숙박, 음식, 교통, 관광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관광정보제공 시스템’이다. 여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어디서든 찾아

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이용객 편의를 높여 나갈 방침이며, 목포에 대한 정보를 12개국의 언어로 안내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변모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관광지에 가면 위치기반, 그리고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AR 등 최신 통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도 구축하며, 목포를 찾는 여행객들의 선호도와 이용객 추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처리·분석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빅데이터 시스템 용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시간을 걷는 도시, 낭만항구 목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목포는  
가치는 보존하고 새로움은 더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1920년을 걷다



### 갓자옥 모자점은 세계모자박물관으로!

1920년대 개업해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인 갓자옥모자점이 세계모자박물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갓자옥 모자점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상징성과 지역 정체성을 고려해 건물 내·외부를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고, 현재 거리와 어울릴 수 있도록 ‘모자’를 테마로 다양한 전시·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원도심 일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목포시는 100년 역사로 상징성이 있는 ‘갓자옥 모자점’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 1953년을 걷다



### 추억소환 낭만열차 타고 시간여행을!

시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동목포 웰빙공원에 과거 추억을 소환하는 무궁화호 객차 2량이 설치됐다. 열차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마을공방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객차가 설치된 자리는 과거 호남선 열차의 간이역, 동목포역이 있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건물이 철거됐고, 2003년 호남선의 복선화로 선로가 더 이상 역을 지나지 않게 되며 폐역 됐다. 이후 철도 폐선 부지에 현재 공원이 조성된 것이다. 이러한 옛 기억을 공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과거 동목포역의 추억을 떠올리며 폐열차를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으로 2019년 국토부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이룬 결실이기에 의미가 더욱 특별하며, 열차 카페와 공방은 협동조합 설립으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옛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오감만족 목포관광 100배 즐기기

스마트 관광정보 시스템으로 편리함과 안정성을 갖췄다면,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목포 관광은 깊이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 전까지 약 6백만 관광객이 찾았던 관광의 물줄기를  
이어 앞으로 1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 오감만족 첫 번째

### 낭만 가득 목포 야경에 눈이 번쩍이다.

대반동 일대는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목포대교 경관조성,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 대반동 체험형 디자인  
조망대 조성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대대적 경관연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해변맛길 ‘연인의 길’ 명칭처럼 머물고  
싶은 낭만 일번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오감만족 두 번째

### 평화광장 해상판타지쇼에 귀가 즐겁다.



상상 속에 있을 법한 ‘판타지’가 목포의 대표 친수공간인 평화광장에서  
펼쳐진다. 춤추는 바다분수의 물길과 해상 무대 공연,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쇼까지, 바다와 하늘을 잇는 빛과 음악의 향연은 목포만이  
선보일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다. 바다분수 앞 새롭게 조성하고  
있는 해상무대는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주 1회  
선보일 계획이다. 목포야경을 배가시킬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에 주력한다.

### 오감만족 세 번째

### 평화광장 맛의거리에서 목포 맛에 빠지다.

게미진 음식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맛집이 되는 목포에 특색  
있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평화광장 맛의거리다.

진출입로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골목부터, 가로등, 자전거  
보관대와 거리의 바닥까지 버리는 공간 없이 맛의거리를 상징  
하는 통일된 디자인을 연출할 계획이다. 17개소 제철 수산물  
전문음식점에 사계절을 모티브로 개성 있는 간판을 조성하고,  
봄의 병어, 여름의 민어, 가을의 갈치, 겨울의 낙지 등 사계절  
고보라이트를 설치해 야간에도 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경관콘텐츠를 조성할 예정이다. 점포 경사로와 점자 블록으로  
보행편의성을 높이는 무장애 디자인도 세심하게 챙겼다.





오감만족  
네 번째

## 남향 꽃정원 향기와 삼학도 무장애 숲의 녹음에 취하다.



지난 가을, 버려진 공간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식재해 꽃정원으로 재탄생됐던 남향이 올해 봄꽃의 기운을 안고 돌아온다. 5월이면 장미길과 양귀비, 안개꽃이 만개한 꽃길을 거닐며 늦봄의 싱그러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변맛길 2구간인 이곳 남향은 ‘환경보호 생태길’ 테마에 맞게 올해 새롭게 갈대숲길도 조성하고 있다. 꽃정원 끝자락의 나무다리를 건너면 갈대 군락지에 이르게 돼,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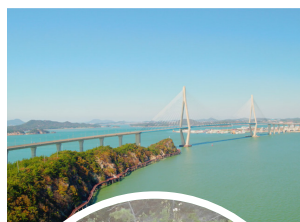
삼학도는 숲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해 황토 포장길과 수선화, 산수국, 왕벚나무, 동백나무 등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길에서 한적하게 걸을 수 있게 됐다. 수국언덕과 열매숲, 벚꽃길과 상록활엽수림원을 조성하는 천년의 숲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삼학도는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감만족  
다섯 번째

## 해변맛길 30리 바다를 따라 걷고, 또 바다 위를 걷는다.

먼저 바다를 따라 걷는 길, 해변맛길 30리다. 평화광장에서 갯바위, 남향과 삼학도를 지나 대반동까지 이어지는 11.7km 길이의 도보길이다. 올해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남향, 삼학도, 대반동 구간을 조성 중이다. 상반기면 남향과 삼학도를, 하반기면 바다 전망대와 노을 포토존이 조성된 대반동 젊은 연인의 길을 만나볼 수 있다. 2022년 전구간 완성되는 해변맛길은 전국에서 가장 걷기 좋은 도보여행 코스가 돼 목포의 문화, 역사, 예술, 맛집과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다 위를 걷는 길도 새롭게 개선되고 있다. 대반동 스카이워크 포토존은 본연의 의미를 한층 더 살릴 수 있도록 길이 연장, 시설 보완을 위한 리뉴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고하도 해안데크는 2차분 조성으로 상반기면 해안동굴도 즐길 수 있는 총 연장 1,738m의 데크가 완성된다.



고하도 해안데크

대반동 스카이워크



## +1 문화예술

# 예향목포, 365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활짝

**2020 예비문화도시 선정 → 2021 법정 문화도시 지정까지 이어간다.**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목포시는 올해 7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해 법정 문화도시 선정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작년 한 해 시민참여 간담회와 분과별 회의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 의견을 수렴해 계획수립부터 예비문화도시 지정까지 이끌었던 목포시는 올해 사업 추진 시 중점을 두는 부분 역시 시민과의 소통이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 그리고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 역시 시민이 된다.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도시 운영조직인 문화도시센터가 구축됐다.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과 워크숍인 ‘문화향구 조타실’도 상시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주부, 어르신들의 문화기획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사업 ‘뜬금포기획단’도 추진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갯물학교’를 통해 문화기획자와 큐레이터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 연구개발과 발굴, 자료로 구축하는 ‘목포문화도시 R&D사업’으로 정교함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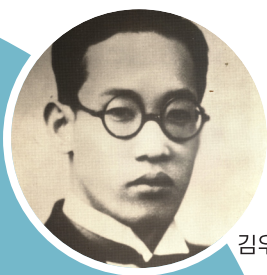
문화사업 수혜자 역시 시민이 된다. 서점과 카페를 소규모 전시와 아트페어 등 문화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문화다방사업’과 함께 리빙랩 공간에서 문화활동이 가능한 ‘꿈지락 실험실’을 운영해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문체부 최종 평가와 심의를 받게 되며, 선정되면 5년간 최대 2백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화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목포 가을, 문화로 물들이다. 전국 최초 **문학박람회** 개최한다.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문학, 그리고 박람회. 생경할 수 있는 이 두 요소의 조합은 문학 전통성에 목포만의 문화적 상상력을 더한 목포의 핵심 콘텐츠다. 전국 최초로 선보일 만큼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하며, 예향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재미를 가미한 새로운 문화예술행사로 ‘목포문학’을 새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문학박람회는 10월 가을페스티벌 기간 중 10월 7일(목)부터 10월 10일(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목포문화관과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먼저 목포문화관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작가의 날을 정해 토크와 노래 콘서트, 단만극 공연 등 4인 4색 문학행사를 선보이며,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AI 미디어존, 홀로그램 상영관과 유명작가 드로잉 및 웹툰아트, 캘리그래피를 전시하는 등 5개 테마 전시관도 운영한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는 k-pop, 힙합과 융합된 새로운 문학공연이 불꽃쇼와 함께 연출되며, 목포행 문학열차와 선상문학콘서트, 목포 문학길 투어 등 문학과 관광이 연계된 관광거점도시만의 특화된 관광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문학단체 및 문학인들과 수차례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본 계획 수립도 마무리한 시는 문학을 테마로 전국 어디에서도 시도된 적 없는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문학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 목포문학박람회에 많은 문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억 3천만 원이라는 최대상금 규모의 목포문학상 공모도 추진하고 있다. 장편소설 분야는 1억원, 시(시조), 희곡, 평론 등은 각각 1천만원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 9월 1일 발표 예정이다.

### 2021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코로나로 1년 순연된 비엔날레는 올해 수묵을 통한 패션 쇼와 디지털 프로그램 등 대형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게 돌아온다. 강형구, 김중만, 안도다다오, 지어우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수묵전시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 목포 항구버스킹 (4월 예정)

- 목포항구포차 : 매주 금·토 19:00~21:00
- 근대역사관1관입구 1897 개항문화거리광장 : 매주 토 16:00~18:00
- 목포 평화광장 : 매주 일 16:00~18:00
- 북항 노을공원 : 매주 토 19:00~21:00

#### 문화예술창작촌 조성 (11월 예정)

서산동 보리마당 공가와 폐가를 활용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체험 전시공간 오픈

## 새로운 여가공간 확충, 행복지수 up



장기화된 코로나로 실내생활이 늘어나는 요즘, 목포시는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여가활동의 여유와 쉼이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자 한다.

### 리틀야구장

영산강 카누경기장 옆 체육시설 용지에 리틀야구장이 새롭게 조성됐다. 활동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공간으로, 안전 펜스와 덕아웃, 휴게실 등도 설치했다. 그간 유소년 야구장이 전무했던 가운데, 이번 리틀야구장 조성은 야구를 사랑하는 꿈나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치 : 옥암동 1376
- 운영 : 4월 개장 예정





## 반려동물 놀이터

부주산 옛 화장장부지에 양육자와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활동공간인 만큼, 대형동물과 중소동물별 놀이시설을 구분 설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펜스도 마련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벤치와 그늘막, 순환산책로 등 양육자를 위한 편의 공간도 조성한다.



- 위치 : 목포시 옥암동 산 36-20 일원
- 운영 : 2021년 6월 예정

## 어울림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용해동은 총사업비 약 129억원(시비 약 72억 원)을 투입해 독서와 문화, 놀이가 공존하는 문화시설이 조성된다. 연면적 4,424㎡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어울림도서관의 1층은 북카페와 문화교실로, 2층에는 전남 최대 장난감도서관과 리딩 스테어 등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3층은 종합자료실과 강의실 등 학습 장소가 된다.



- 위치 : 용해동 997-1
- 운영 : 2022년 예정

## 자전거 터미널

영산강 국토중주 자전거길의 시작점, 자전거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가 될 터미널이 3월 개장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3억 4천만 원(시비 1억 7천만 원)으로 조성됐으며 자전거 정비부터 보관, 휴식 공간까지 갖춘 편의 공간 등을 함께 제공한다.



- 위치 : 옥암동 1376번지(구. 황포돛배매표소)
- 운영 : 3월 개관/자전거수리소 (9:00~18:00), 휴게음식점(하절기 8:00~24:00/동절기 8:00~22:00)

##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유달산에 새로운 이색 체험공간이 등지를 틈다.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는 다양한 교육·체험으로 창의성과 감성을 키워줄 목재문화체험장이 6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 공모 사업비 30억원(시비 6억)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공간에 아이들을 위한 유아 목재 놀이터와 DIY체험이 가능한 목공예 체험실, 전시실을 조성 중이다.



- 위치 : 달성공원 옆
- 운영 : 6월~12월(시범운영) ※정기 휴일 : 매주 월요일 오전 10:00~12:00, 오후 13:30~15:30(1일 2회)

#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목포

## 빈틈없는 도시 안전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들의 안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킨다



목포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빈틈없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약 10억 원(시비5억)을 투입해 목포시 안전통합센터의 CCTV를 112 및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유관기관과의 공유체계를 통해 긴급구조 및 출동지원, 범죄와 화재예방, 각종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해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철저한 도시상황 관제로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 ‘목포 낭만콜’ 택시회사, 이용객 모두 만족도 높아

목포만의 독자적 통합 브랜드 콜택시인 ‘목포 낭만콜’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택시시장에서의 이중배차 문제 등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시가 1억 원을 지원해 앱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 9개 법인·개인택시에서 2천5백만 원을 자부담해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신속한 배차로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단일화된 플랫폼에 소속된 택시업체의 자긍심 또한 커지고 있는 목포 낭만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함께 통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 ‘목포 낭만콜’ 사용 인터뷰 21.2.5.

#### Q ‘목포 낭만콜’ 3개월 간 사용해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11월 기준 일평균 5백 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 12월은 1천 건, 1월에는 하루 평균 2천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 Q ‘목포 낭만콜’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편리함과 간편함, 그리고 신속성과 안전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탑승기록이 남아, 여성분들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어, 신뢰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 Q 목포 낭만콜을 사용하신 탑승객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배차성공이 높아진 점이 손님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봅니다. 목포 전 시내를 누비는 1천 5백대 중 가장 가까운 택시가 바로 배차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 Q 목포 낭만콜 사용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공차시간을 줄일 수 있고 통일된 플랫폼에 소속돼 결속력도 높여주고 있다고 느낍니다.

#### Q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김동명 개인택시 부지부장, 김상운 조합원〉

## 살기 좋고 가고 싶은 섬으로 대변신!

목포 섬들이 육지가 되고 있다.

총사업비 규모만 약 5천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들로

경관을 바꾸고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삶을 개선하게 된다.

## 목포시 유인섬 전체, 3년 연속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쾌거!

먼저,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가 핵심인 어촌뉴딜사업이다. 달리도와 울도에 이어 고하도까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유인섬 전체가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2019년 선정된 달리도·어망촌항은 물양장 확장, CCTV 설치 등 노후어항 환경정비가 진행 중이며, 외달도 바다자연정원 조성, 달리도 쉬어가(家)와 맞이공원 등 섬 관광과 휴양시설 조성도 지난해부터 착수해 진행 중이다.

2020년 선정된 울도항은 선착장, 방파제 설치, 대합실 정비와 함께, 힐링센터와 탐방로 경관정비사업도 추진한다. 2021년, 고하도가 선정됐다. 용오름 마루, 고하도 트레킹 스테이션, 마을 경관, 자전거 스테이션, 바다체험낚시터 등을 조성하고, 진입도로와 탐방로도 정비할 예정이다.

## 섬에서도 수돗물 칼칼칼!

수돗물 공급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수 수량 감소, 염분유입 등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할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 공사는 작년 8월 장좌도 사업이 먼저 완료된데 이어 울도, 달리도, 외달도도 올해 안에 사업이 모두 완료돼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섬의 지도가 바뀐다

국비 4,820억원을 투입해 신안 압해, 목포 울도와 달리도, 해남 화원까지 잇는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사업으로 섬의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접근성이 좋아진다. 2021년 정부예산에 298억원이 반영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3월 달리도와 울도에서 국도 77호선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섬의 연륙화로 관광활성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선제적이고 폭넓게,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 지키다

#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

목포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 고군분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책과 빈틈없는 방역 시스템, 체계적인 백신접종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31억 규모 재난지원금, 시민들에게 **희망**을, 지역경제엔 새로운 **활력**을

목포시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 2월 개시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모두 완료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며 함께 고통 분담해 온 시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과감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목포시는 행사성 경비 등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재원 약 231억 원으로 전 시민 대상 10만원, 그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50만원 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 콜센터 운영 등 신청·접수·지급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해온 목포시는 현재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한 명의 누락,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는 4월 2일까지 가능하다.

2021년 지역경제 활성화 부양책으로 발 빠르게 준비했던 지원금이 1분기 내 신속하게 지급됨에 따라 적시 적소 배분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률은 95%를 넘어섰고, 자율기부로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방역물품 구입에 활용되고 지역 현안사업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도 ‘순항 중’이다.  
지난 2월부터 3월 3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예방접종에 이어, 관내 고위험 의료기관과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접종(AZ)도 완료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특별한 중증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 4월  
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지침에 따라 대상자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현재 안전하고 원활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시행추진  
단을 구성해 백신 수송부터 보관, 대상자  
관리, 접종시행, 이상반응 대처 등 접종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백신  
접종센터는 지난 2월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목포  
시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코로나 백신접종 Q&A

다음은 백신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 Q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전 국민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제외)

### Q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아도 괜찮은가?(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합니다.

### Q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예방접종 순서로 시행  
합니다.

### Q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Q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백신접종 거부자는 우선순위 접종자와 일반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 11월 이후에 접종 가능하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본인의 순서가 왔을 때 제때 접종  
할 것을 권고합니다.

### Q 예방접종은 안전한가. 이상반응은 없는지?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 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한 충분히 관찰이 필요하며,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섬의 관문 목포, **한국섬진흥원** 유치 총력

“ 왜 목포에  
설립돼야 하는가 ”

- 섬진흥원 설치는 목포에서 씨앗이 뿌려졌고, 결실이 맺어졌다.
- 목포가 대한민국의 ‘섬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다.
- 전국 섬의 65%를 보유한 전라남도 섬의 관문이다.

섬의 관문이자 중심지인 목포시가 한국섬진흥원의 유치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 정책수립 등을 추진하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한 도시인만큼, 최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주요 핵심 토대는 모두 목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2012년 목포대 도서관 화연구원에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전국 최초로 제안하였고, 또 그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목포는 2019년 8월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그리고 2028 섬엑스포 유치 추진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 정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육지와 다도해를 잇는 섬의 관문이자 수도인 목포는 섬 주민의 교통, 경제, 생활의 중심지로서 갖는 입지 장점 외에도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섬재단 등 섬 연구기관·단체의 집적화에 따른 네트워크를 통해 섬 정책과 사업 수행이 용이한 최적지다.

목포시가 그간 섬 진흥원 설립에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반드시 목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월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아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목포 섬 관련 4개 협회 대표, 학계, 정계, 언론인 등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였으며, 범시민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위성 홍보, 유치 릴레이, 온라인 서명 운동 등 섬 진흥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당위성, 타당성은 충분하다.  
이제 모든 시민이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결집해 유치 불 조성의 필요할 때다.**

한편 목포시는 섬진흥원 설립지역 유치 신청서를 전라남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으며, 설립지역은 균형발전, 입지 여건 등 선정기준에 따라 현장심사 후 4월 중 결정된다.





## 시정 뉴스

## 목포자연사박물관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관

목포자연사박물관이 17년 만에 대대적인 공사를 마치고 3월 9일 재개관했다. 박물관 곳곳은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돼 자연생태 자료를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입체적인 생태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층 중앙홀 벽면에는 실감나는 초대형 영상이 펼쳐지며, 공룡알 등지 화석관은 체험과 관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로비는 현실과 가상이 합쳐진 증강 현실 사진관이 설치돼 포토존으로 이용된다.

2층은 동물과 식물, 곤충을 조화롭게 전시·연출하였으며, 다양한 수상 생물이 살고 있는 연못 생태계를 거닐며 박물관 전시물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6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문화재청과 함께 남도지역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을 연계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서남해안 권역의 자연유산자원을 최초로 외부에 선보이게 된다.

이처럼 교육과 체험, 휴식이 함께하는 자연사박물관은 앞으로도 관람객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최첨단 문화 공간으로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스마일센터 개소로 원도심 활력 충전

옛 목포경찰서 부지에 터를 잡은 스마일센터가 지난 3월 5일 개소식 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임시거처 제공 등 일상생활의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 전문치유 기관이다.

한편 스마일센터 외에도 통일부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 전남청소년지원센터도 유치해 앞으로 160여명의 상주인력이 근무할 예정이며, 그간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됐던 상권은 활기를 띠고 지역경제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 2021년 방문해야할 아름다운 숲 선정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곰솔숲'이 전남도가 선정하는 '2021년 방문해야할 아름다운 숲'에 선정됐다. 또한, 산림청 '2021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 방제' 사업에 응모해 사업비 6천9백만원과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경관개선'을 위한 도비 1억원도 지원받게 됐다.

이충무공 유적지라는 역사성과 함께 아름다운 곰솔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고하도가 해상케이블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목화체험관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숲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 유달산, 명승지정 추진

목포의 명산, 유달산의 일등바위 일원에 대해 '명승'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 역사와 민속 등 인문환경과 식생, 경관 등 자연환경, 그리고 명승 지정에 대한 가치 및 타당성 등 유달산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유달산은 서남해안의 바다와 섬, 목포 도심을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곳이며,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일괄(보물 제2011호) 및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 목포시사(전남도 지방기념물 제21호), 목포 오포대(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어, 풍부한 문화유산과 풍광으로 관광·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유달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달산을 명승으로 지정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보수·관리 등에 국가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한다.



# 시민참여마당

## ‘달달한 목포’를 아세요?

〈달라진 목포 + 달라질 목포〉



목포시 SNS주부기자  
회장 박경옥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요즘 답답한데 어떻게 사는지 시시콜콜한 안부 인사로 시작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다. 친구는 뉴스 배경에 목포대교와 고하도를 봤다는 얘기부터, 드라마(도도솔솔라라솔)에서도 예쁘게 나오는 목포를 봤다며,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목포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했다. 가장 가보고 싶은 핫 플레이스가 목포라고 하니 팬스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목포로 오면 가이드를 하겠노라며 전화를 끊었다.

해상 케이블카부터 고하도 데크길, 그리고 맛의도시 목포의 맛과 평화광장의 바다 분수쇼와 해상불꽃쇼까지.. 머리속은 온통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목포 명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며 가득해졌다. 한 번 와 본 사람은 언제든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자랑스러운 내 고장 목포라, 정말 어깨가 으쓱해진다.

최근 이렇게 목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맛과 멋, 근대역사자원, 풍부한 관광인프라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뚝뚝 뭉쳐 코로나19와 싸우며 시민들을 위해 펼치는 일사불란한 행정 덕분이라고도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목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사랑받을 때, 우리 시민들도 몸에 밴 친절함과 청결한 도시 가꾸기를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보니 각 가정마다 베란다에 꽃이 핀 화분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생활화된 습관에서 비롯됐으며,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목포사랑운동이 있다. 내 주변부터 깨끗이 만든다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고장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 목포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비바! 목포.



## 목포시의회, 제3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 2021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일반부의 안건 등 처리
- ✓ 코로나19 극복에 힘 모우고, 지방자치법 개정예 발맞추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열자



‘21.1.19 제363회 임시회 폐회

목포시의회는 지난 1월 8일간 진행된 제36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식 시장의 시정연설과 목포시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총 15건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 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2건 가결 1건, 찬성 1건, 부결 1건으로 심의·의결됐다.

또한, 25일 본회의에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군 공항 이전문제를 결부시키는 결정을 즉각 철회, 당초 약속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촉구하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광주광역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박창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시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과 화합하여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했다.

## 목포시의회,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 ✓ 목포시 관내 21개 사회복지시설 위문
- ✓ 박창수의장,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의정을 펼치겠다.



‘21.2.3.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목포시의회가 지난 설 명절을 맞아 관내 21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위문 대상 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복지관 6개소, 아동복지시설 5개소, 장애시설 5개소, 모자보호시설 2개소, 다문화시설 1개소, 노숙인시설 1개소로 총 21개소 이다.

의장단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코로나로 최소 인원만 참여한 위문단은 직접 방문한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한 곳 외에는 참치 캔과 멸치, 김 등의 위문품 전달로 대신하며 안전하게 민생안정을 살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 의장은 “우리 주변에는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목포시의회, ‘한국섬진흥원’ 목포에 설립 해야 해

- ✓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
- ✓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설립 공모에 목포유치 힘 실어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8일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포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한국섬진흥원(이하 ‘섬진흥원’)의 목포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먼저, 목포는 전국 섬의 65%를 보유한 전라남도의 서남권 9개 지역 1,534개 섬의 관문이자 국도1·2호선과 서해안고속철도와 남해안 철도의 교차·출발점으로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서남권의 중심 항구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섬진흥원’ 설치의 필요성은 2012년부터 국립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목포에서 꾸준히 제기·논의 되었고, 2020년 12월 목포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끝으로, 목포는 2019년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020년 서남해의 다도해를 품은 인근 지역과 ‘서남해안 섬 벨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준비하는 등 대한민국 섬에 수도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음을 밝혔다.

또, 목포시의회는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가지고 준비된 목포에 ‘섬진흥원’이 설립되는 것이 대한민국 섬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함을 거듭 강조하며, 인근 지자체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관계자는 “성명서는 목포시에 ‘섬진흥원’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민의 염원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0.12.10. 기획복지위원회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방문



‘21.1.22 도시건설위원회 평화광장 리모델링 현장 방문



‘21.1.22 관광경제위원회 목포활여회플라자 방문



# 우리동네 소식



용당동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 나눔 Project

용당1동주민센터는 올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지역 주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한 “2021년 용당1동 나눔 Project”를 추진한다. 명절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중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역품나무 문화체험 후원 사업 등을 통해 희망으로 가득찬 2021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용당2동



## 사랑의 줌도리 쌀 모음 운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생조직연합과 함께 주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줌도리 쌀 모음」 운동을 추진 하였고, 모금된 총 336만원 상당의 기부금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가정과 경로당 5개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쌀 (10kg) 63포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연동



## 설맞이 선행, 저소득 독거가구에 식료품꾸러미 전달

지난 2월 목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동의 저소득 소외계층 25세대에 식료품 꾸러미(1,125천원 상당)를 전달했다. 라면, 햇반 등 반조리 식품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명절에도 집에만 있으며 우울감 느끼는 홀로 사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느끼게 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산정동



## 소외계층에 사랑의 물품(겨울이불 30채) 전달

목포산정교회가 지난 9일 관내 소외계층 30가구에 극세사 이불을 전달하였다. 종교시설에 지원하는 목포시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과 교회에서 마련한 성금으로 겨울 이불 30채(환산액 114만원 상당)를 구입하였으며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하였다.

연산동



## 이웃과 함께하는 설맞이 나눔 실천

연산동 자생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김, 떡국, 선물세트 등 총 400만원의 물품을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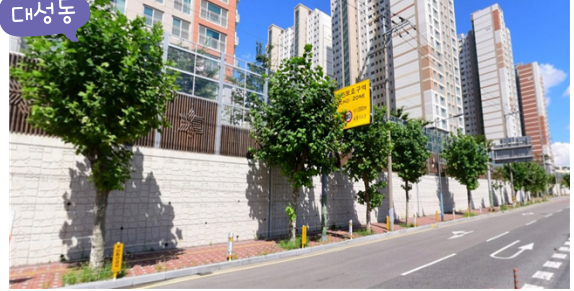
## 원산동



### 사랑의 물품 나눔 행사로 풍성한 명절 보내기

원산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광원)에서 코로나 19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대신해 건강하고 풍성한 설을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며, 경로당 11개소에 화장지, 물티슈(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대성동



### 산뜻한 경관조성으로 이색 볼거리 선물

대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색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천년나무아파트 옥벽에 도색 및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산뜻한 경관 조성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쾌적함을 더하고 가톨릭 목포성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목원동



### 화재취약 주거지 위한 안전물품 전달

목원동 주민(박00님)은 지난 연말 목원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방안전 설비인 완강기 17개(100만원 상당)를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 가구에 전달하였다. 화재발생 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주는 물론, 지역사회를 하나로 잇는 따뜻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명동



### 해오름 봉사단 사랑의 반찬 나눔 실천

동명동 해오름봉사단(단장 임순례)은 매월 관내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7명의 봉사단원들이 모여 손수 반찬을 만들어 홀로사는 어르신과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전달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삼학동



### 사랑의 '온정나눔가게' 운영 활성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온정나눔가게는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운 이웃 108가구(지역아동센터 외)에게 이불 및 생활용품 등 정기적인 물품(5백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재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어린에게 피아노 무료 수강 등 재능 기부를 실시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만호동



### 만호동, 봄기운 타고 나눔의 손길 이어져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사랑의 김' 후원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신광상사(대표, 박창수)와 선일식품(대표, 김태한)이 공동으로 전달한 사랑의 김 30박스(250만원 상당)를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지회(회장 고경옥)에서 지원한 마스크 1천장과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 유달동



#### 씨월드 고속훼리, 사랑의 위문품 기탁

씨월드 고속훼리(대표 이혁영)에서는 지난 2월 8일(월) 다가올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유달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위문품(210만원 상당의 라면 40박스, 롤휴지 30롤, 조미김 50박스)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 죽교동



#### 이웃사랑 마음 모여, 큰 희망으로 전해

죽교동에서는 지난 3일부터 죽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도중) 회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백미 10포, 라면 20박스, 김 10세트(70만원 상당) 기탁했고 목포목우회(회장 최성균)가 다문화 및 다자녀 저소득가정에게 명절 선물 꾸러미 5세트(2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 북항동



#### 사랑으로 모인 동전, 꿈을 키우는 장학금으로 전달

북항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18년부터 특화 사업으로 「사랑의 동전모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동전모이기 사업에 지사협 위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용해동



#### 깨끗하고 쾌적한 용해동 만들기 총력

먼저 깨끗한 경관 조성이다. 4~10월 사이 통장협의회와 동 직원으로 구성된 43명이 무단투기 예방 홍보 등 깨끗한 용해동 만들기에 힘쓸 예정이다. 이웃을 위한 뽕송뽕송 빨래특공대도 운영한다. 7월부터는 경로당,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세탁서비스 희망세대의 빨래감을 수거, 세탁, 건조 후 배달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로동



#### 설 명절 맞아 저소득층 100세대에 백미 100포 기탁

사회적기업 대신아이씨티(주)(대표이사 이소영)가 지난 2월 백미 100포를 기탁하였으며, 코로나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평소 목포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물품 지원 등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이소영 대표는 이로동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매월 독거노인 13세대에 밀반찬 봉사에도 참여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 상동



#### 따뜻한 나눔 릴레이 이어져

따뜻한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상동방위협의회(회장 김명철)에서 라면 40박스, 화장지 30박스를, 남악로타리클럽(회장 나종탁)에서 백미(10kg) 30포를 기탁했다. 또한, 성신고등학교(교장 김성용)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김장김치 30박스를 기탁했으며, 모든 물품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130세대에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 하당동



### 나눔 손길로 따뜻한 온정 전해

하당동 곳곳에서 이웃사랑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신진문화사(대표 강진효)는 조손가정 학생 1명에게 현금 120만원을, 가온해양(대표 김현기)이 조손가정 학생 1명에게 현금 120만원을, 목포교회가 저소득층 4명에게 480만원을, 영성교회에서 백미 10kg(20포)를 기탁했고 모든 현금 및 위문품을 저소득 취약계층 26세대에게 전달했다.

## 신흥동



### 함께하는 2021 “We love 신흥” 운동 전개

모든 주민이 이웃이 되어 함께 나누고 보살피는 2021 “We love 신흥”의 첫 시작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지난 2월 경로당 어르신 160명에게 건강 떡국(2kg 160포)을 전달하였고, 방위협의회에서 컵라면 100박스를, 목포신흥에서는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했다.

## 옥암동



### 꽃향기가 물씬, 살기 좋은 옥고을로

옥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는 삼향천 산책로와 공한지에 톨립, 수국, 능소화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살기 좋은 옥고을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부흥동



### 코로나도 이기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코로나19에도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동 자생조직, 사랑의교회, 독지가 등에서 675만 원 상당의 쌀(10kg) 175포와 라면 50박스를 후원하였고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라면 1004봉지를 후원해 기부물품은 다자녀, 한부모, 홀로사시는 어르신 등 저소득층 250여 가정에 전달되었다.

## 부주동



###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나눔 1번지로

부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올해도 학원비 지원 및 선물꾸러미 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온 세상에 너의 뜻을 펼치게 되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누리 프로젝트, 함께 웃고 함께 꿈꿔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목포 희망나무

기업하기 좋은도시  
전국 1위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  
(전국1위)

2021년  
국비 최고액 확보  
(8,933억)

청렴도 2등급  
(광주,전남 1위)

대양산단  
90% 분양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13곳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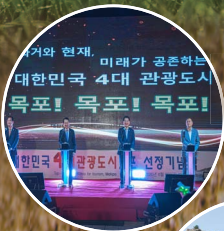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기대

## 3 대 미래 전략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관광산업
- 수산식품산업

## +1 (문화예술)

- 문화도시
- 문학박람회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



근대역사문화도시

맛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



국제슬로시티



근대역사문화, 맛, 멋, 문화예술 자원, 천혜의 해양자원과 섬 등